강의계획서

강좌명	골 때리는 인문학	**강사명**	명왕성
교육적정인원	25명	**최대가능인원**	40명
교육기간	2026. 6. 24.(수)	**시간**	요일 : 수요일 시간 : 2시간

강의소개

교육내용 요약 및 목표·수준	본 강연은 『골 때리는 인문학』의 핵심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축구를 하나의 경기 종목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성찰하는 인문학적 장으로 읽어내는 특강이다. 강연은 오늘날 자본, 속도, 기술 중심의 삶 속에서 인간이 점차 감각과 사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놀이, 몸, 기억, 공간, 희생양 메커니즘, 기술, 기후위기라는 여섯 개의 키워드를 통해 축구가 어떻게 우리 삶의 본질을 비추는 렌즈가 될 수 있는지 풀어낸다. 책의 들어가는 글은 현대인이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AI・VR・모바일 기기 같은 기술이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감각과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강연은 바로 그 문제의식 위에서 축구를 다시 인간적인 실천의 자리로 복원하고자 한다.
교재	『골 때리는 인문학』
수강생준비물	-

강의내용

구분	강의단원	세부내용	준비물
1회	『골 때리는 인문학』은 축구를 “차고 보고 즐기는 스포츠”로만 다루지 않고, 축구라는 실천을 통해 인간 조건을 성찰하고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삶의 본질을 다시 묻는 작업으로 확장한다. 저자는 어린 시절의 골목 축구, 선수 생활 15년, 연구자로서의 15년을 거치며 축구가 삶과 사람, 관계를 비추는 렌즈가 되었다고 밝힌다. 따라서 본 강연은 축구 팬만을 위한 스포츠 강연이 아니라, 놀이를 잃어버린 사회, 몸의 감각이 약화된 시대, 기억과 공간이 쉽게 지워지는 도시, 사건마다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기술과 기후의 전환기에 놓인 인간의 삶을 함께 성찰하는 인문교양 강연을 지향한다.	이 강연의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축구를 통해 인간의 삶을 새롭게 읽는 인문학적 시선을 제시한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약화된 놀이, 감각, 공동체, 기억, 책임의 문제를 시민적 언어로 풀어낸다. 셋째, 기술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묻는다. 책은 축구가 “잃어버린 사유와 감각의 자리”를 되찾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마지막에는 공을 차며 사유하는 존재인 “호모 사커엔스”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한다. 본 강연은 이 문제의식을 청중의 일상과 연결해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4월 14일

작성자 : 명왕성 Prof. Pluto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장 귀하